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

2030 청년 유권자의 젠더갈등과 정당정치

- 제20대 대선을 중심으로-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다 래

2030 청년 유권자의 젠더갈등과 정당정치

- 제20대 대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다 래

김다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안 도 경

부위원장 강 원 택

위 원 송 지 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대두된 청년 여성 민주당 지지, 청년 남성 보수당 지지와 같은 유권자 사이의 젠더갈등이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치적 균열로 대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정치균열로서의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사회구조적인 접근법에 초점 맞추어 왔으며, 이는 최근에 등장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정치균열로서의 갈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젠더갈등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균열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젠더갈등을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해내기 위해 선택한 이론적 접근법은 ‘정당동원론’이다. 해당 접근법에서 정당은 단순히 정치적 균열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즉,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권자는 이에 반응하면서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커뮤니티 담론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권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적 틀 중에서 커뮤니티 담론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20·30 청년세대 동원을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담론 분석은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청년 세대를 동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정당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성별, 세대별 유권자들의 반응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여성 유권자, 국민의 힘은 청년 남성 유권자를 더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하였고, 정당의 동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들의 반응 역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담론 분석 이후에는 청년세대의 반응이 선거의 후보자 선택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와 대선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론조사 시기별 지지율의 변화 추이와 성별이 후보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과정을 통해 20·30 청년 유권자의 지지율이 정당의 동원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선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정당의 유권자 동원 과정과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203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은 정당의 유권자 동원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요인의 결과로 등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정당에 동원되는 사회 갈등과 유권자가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30 청년 유권자, 정당정치, 젠더균열, 정치동원론, 커뮤니티 담론 분석
학 번 : 2020-20825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정당과 유권자 ····· 3

제 2 절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 ····· 5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 7

제 1 절 기존 연구 검토 ····· 7

1. 정치균열 ····· 7

2. 정치균열로서의 젠더 ····· 10

제 2 절 대안적 분석틀 : 정치동원이론 ····· 13

제 3 장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 15

제 1 절 구조의 변화 ····· 16

1. 균열구조의 변화 ····· 16

2. 이념의 변화 ····· 19

제 2 절 정당의 유권자 동원 ····· 23

1. 새로운 세대의 등장 : 2030 청년세대 ····· 27

2. 새로운 이슈의 등장 : 젠더갈등 ····· 30

제 4 장 정당의 유권자 동원 과정 ····· 33

제 1 절 정당의 동원과 유권자 반응 ····· 35

1. 이재명 후보와 청년 여성 유권자 ····· 36

2. 윤석열 후보와 청년 남성 유권자 ····· 42

제 2 절 정당의 유권자 동원 결과 ····· 46

1. 여론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 ····· 47

2. 대선패널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 ····· 52

제 5 장 결론 ·····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 68

표 목 차

[표 1] 2022년 대선 연령별·성별 지지율 ····· 6
[표 2] 2017년 5월 20·30대 대통령 지지율 ····· 29
[표 3] 2022년 5월 20·30대 대통령 지지율 ····· 29
[표 4]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37
[표 5]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38
[표 6]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39
[표 7]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0
[표 8]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0
[표 9]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1
[표 10]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3
[표 11]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4
[표 12]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 45
[표 13] 10월2주-12월1주 20·30대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 · 48
[표 14] 1월1주-3월1주 20·30대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 ····· 48
[표 15] 10월2주-1월1주 20·30대 윤석열 후보자 지지율 ··· 50
[표 16] 1월2주-3월1주 20·30대 윤석열 후보자 지지율 ··· 50
[표 17] 1차 조사/성별이 후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 52
[표 18] 2차 조사/성별이 후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 54

그 림 목 차

[그림 1] 2018-2020년도 세대별 무당파 비율 ····· 24
[그림 2] '청년' 키워드 검색 결과 ····· 26

제 1장 서론

정당과 유권자는 한국 사회에서 현존하는 사회균열 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며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균열은 특정 정치적 사건 등으로 촉발된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정치 정향의 지속적인 간극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간극은 정당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우리 사회의 정당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균열 구조에서도 중요한 연구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정당이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한 갈등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갈등인 '젠더이슈'에서 비롯되었고, 둘째, 정당의 동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유권자들도 다른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던 '20·30 청년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선거에서 자주 동원해 온 갈등은 지역과 이념·세대였다(강원택 2003: 2010; 최준영·조진만 2005; 이갑윤·이현우 2008;이내영 2009; 이지호 2009; 오현주·길정아 2013; 문우진 2016). 21세기 들어서면서 탈물질주의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Inglehart 1971), 젠더갈등에 대한 이슈도 분석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기에 기존의 젠더균열 관련 연구는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청년세대와 젠더갈등을 분석한 연구 대부분이 젠더갈등이 등장한 과정을 구조적인 접근법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젊은 세대의 젠더갈등은 정당의 정치적 요소로 등장한 의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젠더균열(gender cleavage)이 오랫동안 정치적 균열로 작용해온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젠더갈등이 균열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 중이고, '젠더갈등이 균열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연구 또한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젠더갈등의 등장 과정을 정치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젠더

갈등이 정치균열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한다.

본론 첫 장에서는 균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균열의 정의를 살피고, 정치균열로서의 젠더가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21대 대선이 등장하기까지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정치균열과 정당일체감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사용되었는지 정치적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 담긴 분석 과정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의 동원과-유권자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젊은 세대를 동원해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그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반응을 정당의 동원에 사용된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볼 것이다. 둘째, 정당과 유권자의 성공적인 동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정당이 목적하고자 한 바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당의 유권자 동원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전국지표조사와 대선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검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20대 대선에서 등장한 새로운 갈등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정치균열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결론에서 간략하게나마 내려볼 것이다.

제 1 절 정당과 유권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는 바로 정당과 유권자이다. 정당은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도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지지자에 투표함으로써 특정 정치인을 대표로 선택한다. 당선된 공직자는 다음 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직에 있는 동안 유권자의 마음을 살핀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권자가 공직자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즉, 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정당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전용주 2009).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대의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투표는 일종의 정치행위로서 유권자들이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투표행위는 정치적 갈등의 표현이자 결과이다.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E. E.1960)는 정치에 대해 “정치라는 게임의 결과는 무수히 많은 잠재된 갈등 가운데 어떤 갈등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표현하였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투표행위도 일종의 정치 행위로서의 갈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투표 결과는 집합적 성격을 지닌다. 투표는 개개인의 선택이 합쳐져 집합적 결과로 나타날 때 그 의미를 가진다(전용주 2009).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 집합의 선호를 고민하며,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정치학의 오랜 시간 숙제였다. 투표행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유권자의 선호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학적 접근법(sociological approach)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어떤 투표행위를 할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속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균열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만들며 살아간다(전용주 2009).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은 각각의 사회집단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갈등으로 분화된다(Lipset and Rokkan 1967). 민주적 절차 속에서 사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당인 것이다. 따라서, 정당과 사회균열, 집단으로서의 유권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적인 관계로 성장한다.

투표행태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는 바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socio-psychological approach)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이론적 모형 안에는 유권자의 세 가지 태도가 포함된다. 첫째, 정당에 대한 귀속감, 둘째, 쟁점에 대한 태도, 셋째, 후보자에 대한 태도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태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 개인이 하나의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으로 정의된다. 즉, 이들에 말에 따르면 유권자 개인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우리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전용주 2009). 이 모든 연구에서 우리는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그러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집합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당은 유권자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 연구에서의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제 2 절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

2022년에 치러진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정당과 유권자의 관계에서 볼 때,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선거였다. 정당은 지금까지는 크게 이슈 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을 통해 유권자들을 동원해내었으며, 정당의 동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유권자들도 다른 선거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은 정당이 유권자들을 동원해내는 과정에서 활용한 정치적 갈등도 그 동원에 반응한 유권자들도 모두 그 이전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유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질문한다면 단연코 '청년[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년세대는 정치적 유권자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86세대와 함께 노무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이념·세대균열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강원택 2003), 선거 때에 청년 유권자를 향한 정당의 호소는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청년의 공정이슈가 불거지고, 2017년 대선에서 강한 진보적 이념성을 보여주었던 청년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면서부터 청년은 정치권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자

1)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어 왔다. 정치에서 청년을 의미하는 '젊은층' '청년층'은 집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이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국립국어원의 표 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않은 용어이다. 대안적인 우리말 사전인 우리말샘에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청년층은 표준국어대 사전과 우리말샘 모두 사회 구성원 가운데 청년기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표행태에서 청년층을 논의할 때 생물할적 연령을 몇 세를 기준으로 구분할지 의 견이 분분하다. 법률적으로 생물학적 연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연령이 청년기 정의에 활용되 고 있다(배진석 2022).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층을 표현함에 있어서 20·30세대를 주로 지칭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청년, 청년층, 젊은층이라 함은 만20세이상 39세 이하 지칭하는 표현으로 넓게 정의했다.

리 잡기 시작하였다[2]. 특히, 정치적 유권자로서의 청년의 역할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던 20·30대가 급격하게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노선을 보수당 후보자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밖에 없었다[3].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2022년 대선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표1 : 2022년 대선 연령별·성별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없음/모름
남자	36.0%	62.5%	0.0%	1.3%
여자	57.6%	36.5%	3.8%	1.9%

동아시아연구원(EAI) 대선패널 조사 2차 자료[4] 결과를 기반으로 지지율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청년 남성은 62.5%, 이재명 후보자의 청년 여성 지지율은 57.6%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이념에 따라 극단으로 분화된 것이 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어느 정도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해 본다면 이번 대선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

2) 2017년과 2022년의 20·30대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20,30대 청년 남자 88.17%, 청년 여자 85.38%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2022년에 들어와서는 남자 40.88%, 여자 61.19%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청년 남자의 지지율의 감소폭은 여자의 지 지율 감소폭 대비 -23.09% 더 하락함을 알 수 있었다.

3)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의 공동 출구 예측조사에 따르면. 18,19세,20대에서 남자 72.5%가 30대에서는 남자 63.8%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 한겨레(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지지’.”2021/04/07.
(검색일 23/05/2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

4)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의뢰를 받아 선거 직후 3월 10일-15일에 실시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대안적 분석틀

제 1 절 기존 연구 검토

1. 정치균열

일반적으로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이란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층화되어 나타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Rae and Talyor 1970). 정당체계 형성을 사회적 균열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저술이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의 사회공동체 내에서 각 구성원과 집단 사이의 다각적인 관계는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고, 이들 중 일부는 정치체제 속에서 심화되고, 극화(polarization)됨으로써 사회적 균열구조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균열이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적 균열이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정치체제와 정치행태를 통해 표출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균열구조를 선거전략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사회적 균열구조가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활용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정치균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이동윤 2009). 사회적 균열이 정당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 이외에도 제도적 역할도 필요하다. 립셋과 로칸은 사회적 균열이 정당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네 가지의 제도적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정당화의 관문이다. 이는 정치적 반대파가

얼마나 허용되는지에 따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둘째는 통합의 관문이다. 이는 정치적 시민권 즉,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는 대표성의 관문이다. 이는 의회에 대한 접근성 즉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묻는다. 마지막으로는 다수결의 관문이다. 이는 정치적 다수 세력에 대해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에 문제와 관련이 있다(이용마, 2014).

그렇다면 립셋과 로칸의 사회적 균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은 서구의 사회적 균열구조를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설명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서구는 두 가지 핵심적인 혁명을 통해 중심과 주변, 국가와 교회, 도시와 농촌, 자본가와 노동가라고 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사회균열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계급균열 구조를 기반으로 확립된 서구의 좌우 이념정당 체계는 그대로 동결(freezing)되어 196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립셋과 로칸의 동결명제는 서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선거 유동성 증대, 투표율 하락, 신좌파 운동의 등장, 새로운 극우정당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변화들이 생기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샤미르(Shamir 1984), 레인과 어슨(Ersson and Lane 1982; 1994), 달튼과 벡, 플라나간(Dalton, Beck, Flanagan 1984)과 같은 연구자들이 동결명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립셋과 로칸의 동결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70년대 등장한 잉글하트(Inglehart 1971)는 계급균열의 쇠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와 관련되어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의 풍요와 교육 수준의 증가,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안전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결명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서구 사회의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5](이용마

5) 강원택·박원호·김석호. 2019.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윤광일 편.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p.269-315. "초기 균열연구에 대한 논의 이후, 균열에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균열

2014).

립셋과 로칸은 서구에서 등장한 네 가지 균열이 각 정치공동체의 서로 다른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정당체계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강원택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균열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균열은 국민혁명 단계에서 민족 대 체제 간의 균열,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지역균열과 노동-자본간의 균열로 나타난다. 이러한 혁명적 단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이 대표적인 균열로 여겨지고 있다(강원택 2011).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환경, 젠더와 같은 탈물질주의적인 갈등이 주목받으며, 이 또한 정치균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내리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윤광일 2018). 파웰은 정치적 균열을 특정 정당과 강한 연계가 있는 계급, 인종 또는 종교 등 객관적인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집단구분으로 정의하고, 특정 정책 또는 정책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며 실현하고자 애쓰는 정치인에 의해 발전, 지속, 조직되는 균열로 규정한다(Powell 1976). 또한, 균열의 내포적 속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르톨리니와 마이어의 연구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균열은 사회구조적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시체를 식별하는 경험적 요소, 정체감과 역할을 부여하며 관련 사회집단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으로 구성된 규범적 요소, 그리고 일련의 개인 간 상호작용, 제도, 그리고 균열의 한 부분으로 발전한 정당과 같은 조직 등으로 구성된 조직/행태 요소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Bartolini and Mair 1990, 215) 이후, 디건-크라우스는 비르톨리니와 마이어의 정의를 원용하면서 그들이 정의내린 균열은 완전한 균열이며, 이 중 어느 한두 요소가 결여된 형태의 대립에 대한 용어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구 지역을 벗어난 다른 국가의 새로운 형태의 균열과 기원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핵심 구성요소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이(difference)로, 두 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할(divide)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며 완전한 균열과 구분하는 외연적 정의를 내린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균열의 개념은 정교화되어 왔으며, 균열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내포적 정의가 형성되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연구에서의 균열의 개념은 초기 균열에 대한 논의의 정의를 사용해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균열의 개념 또한 그러한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2. 정치균열로서의 젠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젠더균열은 사회정치적으로 오래된 균열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선거에서의 투표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젠더갭(Gender Gap)에 대한 연구와, 여성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 대선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투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남성에 비해 보수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여성들이 해당 선거를 기점으로 진보적인 투표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자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Manza and Brooks 1998, Norris 1999)[6]. 이러한 젠더균열은 잉글하트와 노리스에 의해 그 특징이 정리되었는데 서구 사회에서의 젠더균열의 변천 과정은 세 종류의 젠더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을 보이는 전통적 젠더갭(Traditional Gender Gap)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유권자로서의 여성들은 전통 가부장적 제도에 반대하고, 진보적인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들은 정치참여도와 정치관심도가 낮았으며, 투표나 정당지지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보수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Campbell et al, 1960; Butler and Stokes, 1974; Inglehart, 1977). 두 번째는 여성의 보수성이 줄어들고 남성과 비슷한 정치성향을 보이는 탈정렬(Dealignment)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1980년대 유럽에서 나타났는데, 이로써 유럽에서의 젠더균열은 더 이상 정치적 균열로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Brooks and Manza 1997). 그러나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공화당 후보였던 레이건 후보에 비해 민주당 후보였던 카터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 번째 특징인 현대적 젠더갭(Modern Gender Gap)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화되었던 과거와 비교하

6) 김가영.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서울대학교」석사학위 논문.

여 여성이 남성의 진보성을 뛰어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적 젠더갭의 특징은 1990년 이래 약 30년의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탈정렬의 모습을 보였던 유럽에서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현대적 젠더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Inglehart and Norris 2000; Box-Steffenmeier et al. 2004). 즉,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기반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젠더균열이 정치균열의 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젠더균열이 오랜 기간 정치균열의 하나로 작용해온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성별 혹은 젠더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여러 정치·역사적 사건들이 맞물려 이념, 지역주의 갈등이 젠더균열보다 더 앞선 핵심 균열로 등장하면서 젠더균열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탈물질주의 갈등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정치관심도, 정치참여, 이념 성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강원택 2011).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투표 행태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였는데,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에서 나타나는 정치행태의 성차(gender gap)가 한국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는데 한계가 있다(이남영 1995; 조기숙 2002; 김민정, 김원홍, 이현출, 김혜영 2003; 이소영 2013).

우리나라에서 정치균열로서의 젠더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7]은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정치지형에 활발한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에 유의미한 성차가 존재하는지(구본상·최준영 2019; 박선경 2020), 성차별 인식이 대선에서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구본상 2021; 김기동 외 2020)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적극적으로

7) 한국의 미투운동의 시작은 2018년 1월 29일, 현직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JTBC 뉴스룸에서 고발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일보. 2021. 서지현 검사 "미투 3년 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84100(검색일 23/04/04).

드러나기 시작한 2030 청년 세대의 갈등은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젠더갈등을 인식하는지(김기동 외 2021), 한국 청년층에 보수화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한정훈 2022), 제20대 대선에서 20대 혹은 30대 유권자 투표행태의 변화가 나타났는지(김한나 2022; 이한수 2022) 등 청년세대 내의 젠더갈등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젠더갈등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젠더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구조적 요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최근 등장한 2030 청년들의 젠더갈등은 기존의 등장한 갈등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구조적 접근법(socio-structural approach)만으로는 그 등장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2030 청년 유권자들의 젠더갈등의 등장이 제21대 대선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치동원적 접근법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8) 젠더갈등 혹은 균열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한 것은 (김한나 2022; 이한수 2022)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대안적 분석틀 : 정치동원이론

정당체계를 구조적인 요인에서 이해하는 립셋과 로칸에 더해 유권자와 정당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을 수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는 다운스(Anthony Downs 1957)식 정당 모델이다. 다운스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의 입장에 대해 공간적으로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포 하에서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들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결국, 다운스의 연구에서 정당은 유권자의 분포에 따라 수동적으로 경쟁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정치갈등은 정당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생성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정치의 성격이 사회적 균열구조에 따라 규정된다고 전제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사회구조적 접근법(socio-structural approach)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조직하는 대안과 균열이 유권자의 배열 구조인 사회적 균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상정하면서 정당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정당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균열의 접근법은 정치동원론적 접근법(political mobilization approach)이다. 여기서는 정당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는 능동적 존재로 여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은 단순히 정치적 균열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표적인 학자는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E. E. 1960)와 사르토리(Sartori, Giovanni. 1990)가 있다. 샤츠슈나이더는 정당을 사회의 갈등이나 균열을 반영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런 갈등을 일정하게 틀짓고 위계화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당을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상정하는 관점은 사르토리에게도 계승된다. 사르토리는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정당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생산자의 옵션 피드백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즉, 사르토리 역시 정당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정

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등장한 2030 청년 유권자의 젠더갈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구조적 접근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구조적 변수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정당체제의 편제를 분석하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전략적 행위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정당체제를 원활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이동윤 2009). 특히, 최근 등장한 젊은 세대의 젠더갈등은 몇몇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반발과 지지의 이유와 함께 정치적 요인으로 등장한 의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균열과 유권자 행태에서 정당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동원론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제20대 대선에서 등장한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젠더갈등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균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볼 것이다.

제 3 장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 정치 지형은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해왔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책 결정 과정을 매개하는 핵심 제도로서의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견고화되며,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 의회 등 주요 정치 과정의 장치들을 제도화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왔다(박경미 외 2010). 그 과정에서 유권자는 정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왔다. 정당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호감, 혹은 동질감, 더 나아가 일체감과 같은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당체계와 사회 간의 정렬(alignment)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정당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곽진영·김은경 2018). 정당은 변화하는 사회균열구조에 반응하면서 이를 정책 결정 과정으로 연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체계와 사회균열구조 간에 정렬 패턴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기능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artolini and Mair 1990).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균열구조의 변화와 정서적 양극화라는 두 가지의 정치적 기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정당체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구조의 변화

1. 균열구조의 변화

정당이 유권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당체계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 균열구조이다. 사회 균열구조를 설명한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투표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투표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의 균열구조를 반영한다. 또한 한 국가의 정치적 갈등 구조는 그 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전개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에 한 사회의 정치균열 구조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연계되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균열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균열은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정치체계와 정치행태를 통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균열의 요소는 특정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어 집단 간 갈등과 경쟁의 자원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정당 및 정치 엘리트가 표를 얻고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균열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정당체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Janowits and Segal 1967). 다시 말해, 유권자 투표행태는 분화해 표출되는 사회구조의 균열을 반영하며, 사회적 갈등을 기초로 한 균열 구조가 바뀌면 유권자 투표행태도 변화한다는 것이다(Lipset 1967).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통적 사회균열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며,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전통적 균열구조를 대체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를 재편하고 투표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Miller, Clarke, Harrop, LeDuc and Whiteley 1990). 따라서 한 나라 안에서 형성된 정치균열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중요한 균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그 전부터도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지역주의 균열의 시작 기점은 1987년 선거로 본다. 1987년 제

13대 대선과 이듬해의 제13대 총선에서 경북, 경남, 호남, 충청 등 네 지역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 출신 정치지도자 및 그들이 이끄는 정당에게 배타적 지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에 있었던 대북-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영남을 대표하는 김영삼·노태우, 충청을 대표하는 김종필의 3당 합당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세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호남-비호남의 이분적 갈등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당 경쟁은 호남-비호남 혹은 영남-호남간을 축으로 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로 고착화되었다.(최장집 1996; 김만흠 1995; 조기숙 2000).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출신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 지도자 개인과 정당에 대해 강한 정치적 일체감과 정치적 충성심이 존재했다는 특징이 있다(강원택 2003).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 유권자의 이념과 세대별 위치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념과 세대균열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지역균열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정치지도자들이 모두 한국정치 전면에서 퇴장한 뒤 실시한 첫 선거였다는 점에서 지역균열의 약화를 예측할 수 있는 선거였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특정 지역의 지지 보다는 젊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세대 간 차이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20,30대층의 젊은 유권자들과 50대 이상의 세대 간에 후보자의 선택과 이슈에 대한 태도, 정치적 가치와 이념 성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서구 정치의 주요 갈등 축인 경제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미국, 주한미군,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 시대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이성을 보였다(강원택 2003). 이를 계기로 정치균열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균열 이외에도 새로운 이념과 세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강원택 2003: 2010; 최준영·조진만 2005; 이갑윤·이현우 2008; 이내영 2009;

이지호 2009; 오현주·길정아 2013; 문우진 2016).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의 모습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뭉쳐있던 정당들이 지역주의의 모습을 조금씩 걷어내고, 이념과 세대를 정치 과정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경쟁의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념과 세대균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2000년 후반 이후 해당 연구는 계층연구로까지 확장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복지확충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같이 사회계층과 관련된 쟁점들이 유권자 사이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11년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의제를 둘러싸고 서울시 국민투표를 뒤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선택과 선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정한울 2011). 이후 장승진의 연구를 통해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지지 정당과 후보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장승진 2013), 강원택의 연구를 통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층투표현상, 즉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 간의 대립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원택 201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2010년대에 선거에서는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이념 갈등이 함께 중첩되는 새로운 모습이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강원택·성예진의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이 이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40-50대와는 달리 20-30대의 경우, 복지 확대 여부, 고소득자 증세 여부와 같은 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 경제적 요인이 세대별 이념적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성세대의 경우 진보-보수의 이념을 구분하는 데 외교, 안보 이슈의 강한 영향력만이 확인되었지만, 20-30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에 더해 복지 정책, 증세 문제 등 구체적인 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차이가 나타남을 통해 계층적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계층적 연구 이외에도 새로운 균열로서의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형성시기를 보낸 기성세대

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물질주의적인 가치 외에도 흔히 자아표현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0) 등이 말하는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1990~1993년에 걸쳐 실시된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한 잉글하트(1997)의 경험적인 연구는 한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세대 간의 가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대체로 탈물질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정진민 2012).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젊은 보수의 탈이념화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이제는 기존의 정당들이 유권자를 동원해 온 방식을 통해 젊은 세대들을 동원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원택·성예진 2018). 다시 말해, 젊은 세대일수록 기존의 정당들이 의존하던 이슈에 기성세대보다 덜 반응하며 새로운 의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정진민 2012).

결국, 기존의 지역주의 균열만으로 대두되던 우리나라의 정치균열의 모습이 이념, 세대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로 연계되는 모습으로 변화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치 지도자의 경쟁의 모습이 이에 발맞추어 변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탈물질주의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정당체제의 새로운 의제에 대한 등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2017년 대선 이후 2022년 대선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한 젠더갈등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이념의 변화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정파적 편향성을 동원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사회균열을 활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갈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 때에는 구조적 균열 외에도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자기 정당으로의 편향성 동원에 적합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다(강원택 2020). 이슈 부각에 있어서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정파적으로 결집시키는데 보다 유리한 것은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위치 쟁점 혹은 대립쟁점(political issue)이다(Stokes 1963). 이와 같은 대립 쟁점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등 유권자의 개인의 정당 선호나 충성심의 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견고한 지역균열이 약해지고, 이념균열이 부각되는 시기에 대립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원택 2020).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미시간 학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개인의 주변 환경 속에서 중요한 집단 대상, 즉 정당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적 정향으로 정의되며, 정당은 인식이나 평가, 투표 및 다른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귀속감을 지니게 하는 주요한 대상이다(Campbell et al. 1960). 다시 말해, 정당일체감은 정책, 집단이익, 후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당일체감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내집단(in-group)으로 상정하는 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는 외집단(out-group)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Miler and Ross 1975; Talyor and Doria 1981).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한 정당에 강한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서 경험되는 양극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아브라모비츠와 손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이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부상하면서 양 정당의 이념적 위치가 점차 양극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유권자들 또한 정당 간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지지를 변경하는 점진적 재편(secular realignment)을 겪으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상반된 견해에 따라 유권자 층위에서의 이념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Fiorina, Abrams and Pope 2008; 2010). 이후, 유권자 층위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었다. 아이엔가 외(Iyengar et al. 2012)에 따르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정서적 차원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이념적 분포에는 여전히 중도층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반대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 층위에서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길정아·하상응 2019; 장승진·서정규 2019; 장승진·장한일 2020; 김기동·이재묵 2021). 강원택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대립 쟁점의 부재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 간 경쟁보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정당에 대한 평가라는 정당일체감의 차원에서 선거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투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양극화에 대한 현상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강원택 2017). 특히, 갈등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길정아·하상응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립쟁점의 존재와 상관없이 정서적 양극화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길정아·하상응 2019). 전통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업적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리적 선택의 차원에서 투표로 심판 또는 보상한다고 설명하지만(Key 1966),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동기화된 사고과정을 통해 합리성에 근거한 평가와 정치행태를 가로막을 수 있다(Taber and Lodge 2006; Bolsen, Druckman, and Cook 2014; Groenendyk and Krupnikov 2021). 다시 말해,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유권자들이 쟁점에 의거한 합리적인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올바른 정책

을 제시하는 정당의 역할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 2 절 정당의 유권자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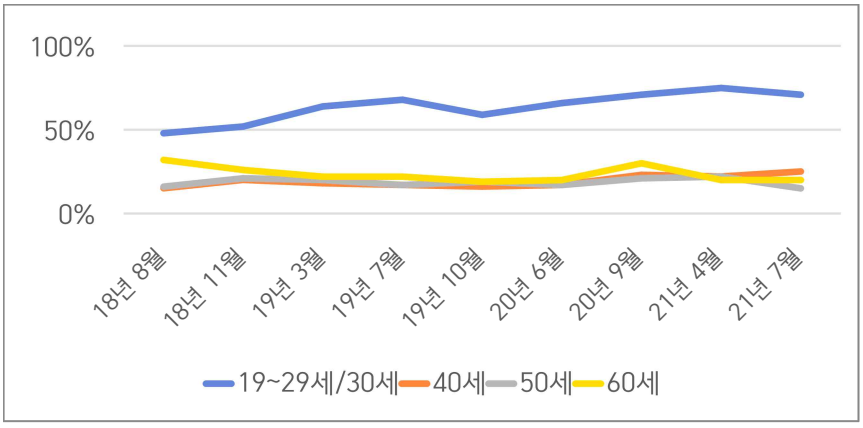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이념, 세대와 같은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기존 정당의 정책적 의제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기성세대로 한정되면서 정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를 통해 무당파들을 포섭해야 하는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새롭게 동원할 수 있는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무당파의 비율이 높은 젊은 세대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청년 유권자를 동원해내고자 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청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자로 인식되지 않았다[9]. 그 이유는 청년세대가 투표율이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낮을 뿐만 아니라, 이념 성향이 없는 무당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갤럽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시된 정당별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 무당파의 비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10]

9) 20대, 30대 투표율은 2017년 대선에서 각각 76.2%, 7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에서 각각 52.1%/54.3%, 60.0%/57.1%, 65.3%/69.3%를 기록하며 다른 세대보다 적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국갤럽 정당별 호감도 여론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40대, 50대, 60대 이상과 비교해보면 20-30대의 청년 무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무당층의 비율은 모든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여론조사는 2018년도, 19년도에 20세에 19세, 2020년 7월 이후에는 18세를 포함하고 있지만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그림1 : 2018~2020년도 세대별 무당파 비율>



그러나 정치 유권자로서의 청년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보터(swing voters)[11]로서 청년층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윤왕희 외 2021). 달튼(Dalton 1984)을 통해 스윙보터와 연결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의 개념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동원되는 두 가지 일반적 방식을 구분했는데, 하나는 정당 일체감에 의해 참여하는 정파적 동원(partisan mobilization)이며, 또 하나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정보나 지식에 의해 정치를 해석하고 참여하는 인지적 동원

11) 스윙보터는 유권자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나뉜다. 스윙보터에 대한 개념은 라자스펠드 외(Lazarsfeld et al. 1948)의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스윙보터를 정당 변경자(party changer)로 말하며, 스윙보터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정보습득 수준이 낮고 투표결정도 늦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후에, 컨버스 (Converse 1962)도 연속되는 선거에서 정당 선택을 변경한 사람들을 부동 투표자(floating voter)'로 정의하면서 스윙보터에 비합리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반면에 키(Key 1966)는 스윙보터를 합리적 투표자로 정의하며 스윙보터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투표선택 변경자(switching voter)들이 정보 습득이나 정치 관심도, 정치 참여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당 지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보이드(Boyd 1986)의 연구도 주요 정책이나 경제상태, 후보자의 자질 등이 정당 선택 변경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했다(윤왕희 외 2021).

(cognitive mobilization)이다. 인지적 동원은 시민들이 정당과 같은 외부적 단서(cues)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치 참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다. 그는 당파적 동원과 인지적 동원의 강도에 따라 인지적 당파층(cognitive partisan), 인지적 무당파층(apartisan), 습관적 당파층(ritual partisan), 정치 무관심층(apolitical)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유권자 집단을 상정하였다. 인지적 무당파층은 소속 정당 대신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크기 때문에 스윙보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강원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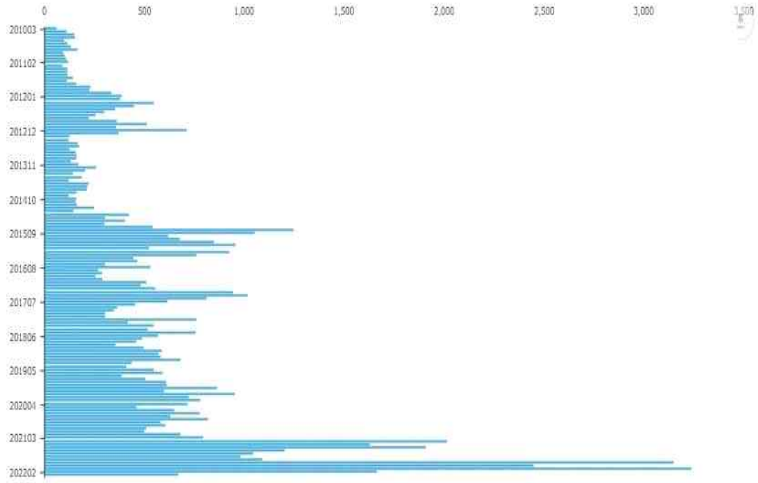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무당파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 무당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투표하지 않은 계층을 일컬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의 논의들에서 무당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혹은 가까운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을 말한다(정진민·길정아 2014).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Miller and Wattenberg 1985). 강원택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무당파층을 정파적 소속감을 갖지 않지만, 정당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임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원택 2020). 따라서 최근의 연구에서 무당파는 기존 정당 및 정당체계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크나(정진민·길정아 2014), 정치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정보나 지식도 높으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유권자를 의미한다(강원택 2020). 정치적 양극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파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이기에 무당파의 영향력은 다른 지지층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류재성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Bafumi and Shapiro 2009).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무당파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 보다 집중되어 있으며, 탈물질적 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매체 사용에 능숙하여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 수단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정진민·길정아 2014). 특히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무당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된 지금과 같은 때에 이

들이 가진 특징은 정치적 유권자로서의 청년 세대에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스윙보터를 연구한 윤왕희 외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고정지지층과 스윙보터층을 비교해보았을 때, 스윙보터층의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중(38.8%)을 차지하고 있으며, 40-50대(32.0%), 60대 이상(29.3%)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스윙보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30대가 스윙보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통적 보수층의 그것에 비하여 2배 이상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윤왕희 외 2021).

이러한 연구를 기반할 때 스윙보터로서 역할이 크고, 무당파의 비율이 많은 청년세대는 정당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적 유권자로서 작용할 높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2 : '청년' 키워드 검색 결과>



빅카인즈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201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정치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에 대한 정치권 관심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청년에 대한 기사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근의 한국 정치 지형

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키워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 새로운 세대의 등장 : 20·30 청년세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등장함과 같은 청년세대를 향한 관심은 과거 다른 현상의 결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위 386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서 정치적 유권자로서의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12] 이후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다수의 젊은 세대가 참가하면서 정치적 유권자로서의 젊은 세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초기 공정의 이슈와 함께 시작된 청년층의 반발은 20·30이 제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유권자로서 부상하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정유라 특혜 논란이라는 불공정 사례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흐름에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에게 공정의 아이콘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탄핵 이후 노무현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던 정치인 문재인의 당선에 거는 청년층의 기대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사뭇 달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 계속해서 문제 되어온 공정의 이슈는 청년층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으로 다가갔을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에게 이슈화되었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트코인 시장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청년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3]. 이후 정권 중반 있었던 조국 사태, 그중

12) 강원택. 2003.「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당시 방송사별 출구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별 투표 현황을 보면 mbc에서는 20대가 59%, 30대가 59.3%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kbs는 20대 62프로, 30대 59프로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비트코인 시장 규제 문제

에서도 조국 딸 특례입학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증폭시켰고[14], 청년층의 떨어진 지지율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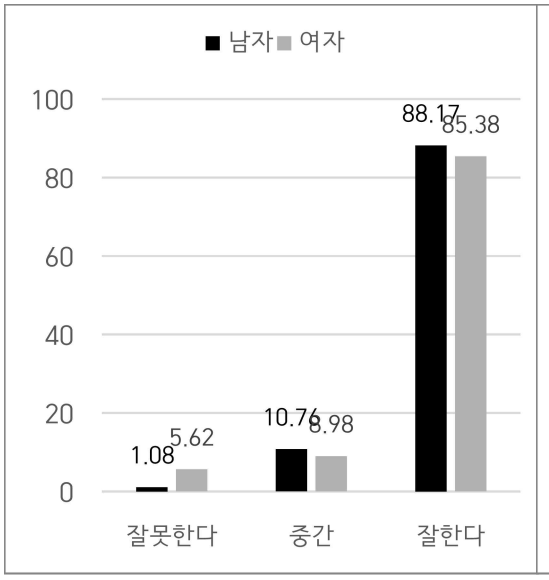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특히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30대의 청년 남성층의 반발이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청년 남성층의 지지율은 청년 여성층의 지지율의 감소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15]. 이를 통해 청년 남성 유권자들은 공정의 이슈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남성 역차별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문재인 정권을 향한 지지를 철회했음을 알 수 있다.

는 모두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11우러 23일부터 22월 1일까지 불거진 공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시사인. 2018.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검색일 23/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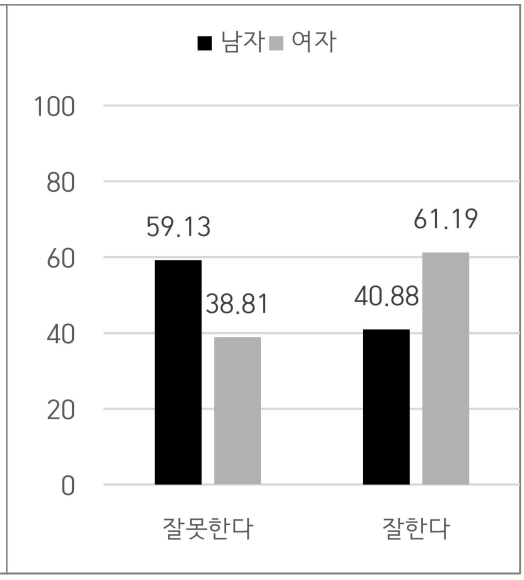
14) 2019년 8월,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리에서 조국의 딸 조민의 의학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장학금 특혜 등 한영외고, 고려대학교,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불거졌었다.

15) 2017년과 2022년의 20·30대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20,30대 청년 남자 88.17%, 청년 여자 85.38%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평가한 반면, 2022년에 들어와서는 남자 40.88%, 여자 61.19%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청년 남자 지지율의 감소 폭은 여자의 지지율 감소 폭 대비 -23.09% 더 하락함을 알 수 있었다.

<표2: 2017년 5월 20·30대 대통령 지지율[16]>



<표3: 2022년 5월 20·30대 대통령 지지율[17]>



이러한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변화는 2021년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8·19세, 20대에서 남자 72.5%가 30대에서는 남자 63.8%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며 더욱 부각되었다.[18]. 이 모든 과정을 통해 20대·30대 청년세대는 양당에게 점

16)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제19대 대통령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연령(20대,30대), 성별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였다.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질문은 1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함부터 10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까지 그 범위가 10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1-4는 잘못한다, 5-6은 중간, 7-10은 잘한다로 합산하여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다.

17) 22년 5월 2일~ 5월 4일 조사한 5월 1주 NBS 전국지표조사를 활용하였다. 연령(20대,30대), 성별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였다.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질문이 아주 잘함/잘함/못함/아주 못함 4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주잘함과 잘함은 잘한다로, 못함과 아주못함은 못한다로 합산한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다.

18)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공동 출구 예측조사에 따르면. 18,19세, 20대에서 여자는 44%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남자 72.5%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남자 63.8%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여자는 43.7%만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선택했다. 한겨레. 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 ’지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1440003688)(검색일 23/05/29).

차 중요한 정치 참여자로 인식되었으며, 그러한 모습은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선까지 계속되었다.

2. 새로운 이슈의 등장 : 젠더갈등

정치적 무당파의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에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탈물질주의적인 가치(post-materalistic values)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탈물질주의에 대한 논의는 처음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 1990; 1997)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서구의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정치문화가 물질주의적 가치(materalistic values)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자아실현 욕구를 더욱 추구하는 것으로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물질주의적인 가치와 구별된다(김욱 2009). 특히, 이러한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는 젊은 유권자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동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청년세대에서 등장한 젠더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해볼 만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젠더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추후에도 정치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젠더이슈가 청년세대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한 것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서이다.[19] 강남역 살인사건

19)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처음 보는 30대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다. 여성단체 등은 범인이 앞서 들어온 남성 7명은 공격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죽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동기로 발생하는' 혐오 범죄에 눈을 떴다. 한국일보. 2022. “여혐 범죄 경보 울렸지만… '혐오 범죄' 실태 파악할

의 피해자와 같은 20대 여성들은 자신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사회에서의 여성 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는 여성주의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탄핵 심판의 결과로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정책적 의제에 사회정의와 관련된 주제를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등장했던 미투운동이 빠르게 정치권의 반응을 획득하였다. 특히, 집권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은 검찰 내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성범죄를 고발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화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운동이 갖는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검찰조직의 부도덕함과 변화, 개혁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호소하며 미투운동에 빠르게 개입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20]. 그러나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여성 의제에 대한 진보당의 관심은 청년 남성들에게는 과도한 여성 집단에 대한 지지라는 인식을 주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년 남성 지지층의 반발은 청년 유권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구도를 만들었다.

청년 남성 지지층의 반발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청년 남성층을 포섭하면서 크게 심화되었다. 여당이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에 대항하여 야당은 청년 남성들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청년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 이준석을 당내로 포섭시킨 것이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21]. 이를 통해 야당은 문재인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20대 30대의 남성 청년들이 대거 국

길 없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1440003688(검색일 23/08/03).

20) 박가현. 2022. “담론의 정치와 성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2018년 한국의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1)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방송 3사가 참여한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공동 출구 예측조사에 따르면. 18,19세,20대에서 남자 72.5%가 30대에서는 남자 63.8%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다. 한겨레. 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 ’지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 (검색일23/05/29).

민의 힘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를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22]. 이후, 보수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년 남성층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이준석 후보를 당 내부로 포섭하였고[23], 이준석은 2021년 6월 11일 30대의 나이로 국민의 힘 당대표에 당선되었다. 이준석을 당대표로 얻은 보수당은 청년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정당 지지도의 변화는 결국 청년들 사이에서 생겨난 사회구조적인 역할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정당의 역할이 함께 작용하면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22) 시사인에서 2030대 청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냐는 질문의 20대 남성의 66.5%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답한 반면, 20대 여성은 29.7%에 그쳤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겸손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은 19.5%만 동의하였고, 여성은 58.1%나 동의하였다. 일관되게 20대 남성은 전체 성별, 연령별 집단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비우호적인 편이였고, 20대 여성은 가장 우호적인 편에 속했다. 시사인. 2022. “20대 남녀 투표, 이 지점에서 극명히 갈렸다 [대선 표심 분석].”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84(검색일23/05/27).

23) “이준석 후보를 왜 청년 남성이 지지하게 되었는지는 2019년 그가 펴낸 <공정한 경쟁;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의 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래디컬 페미니즘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며, 젠더이슈에 반감을 가진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였다.” 서울경제. 2021. “[송종호의 여쏙야쏙]'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젠더 백래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RH9SJ9(검색일23/05/28).

제 4 장 정당의 유권자 동원 과정

그렇다면 2022년 대선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 청년 여성은 진보당 지지, 남성은 보수당 지지를 이끈 결정적인 유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과 남성의 지지 정당의 뚜렷한 차이가 정당의 동원이라는 정치적 요소로 인해 파생되었다고 보고, 청년 유권자 선택에 정당의 동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년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정책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커뮤니티 담론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24].

유권자의 반응을 확인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선택한 이유는 각 정당이 청년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25]. 이번 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본인들의 발언이나, 정책 등 정책적인 요소들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커뮤니티 통해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도 민감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정당들이 청년 유권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정당들의 선거 과정에 큰 영향을

24) 커뮤니티 담론 분석 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커뮤니티는 여성시대,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이다. 분석 시기는 각 당내의 대통령 후보자 경선이 완료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2년 10월 10일, 국민의 힘의 경우 11월 5일을 기점으로 한다) 대선 전 2022년 3월 8일까지이다. 커뮤니티 분석 대상 선정 방법은 각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자주 언급한 커뮤니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중에서도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는 대선 당시의 자료들이 아예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분석 기간 내에 키워드별로 검색이 안 될 때에는 정확도순, 혹은 인기순으로 검색하여 분석 기간에 맞는 글들 중,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로 채택된 글을 위주로 분석하였음을 알린다.

25) 경향신문. 2021. “후보 검증부터 집단행동까지…커뮤니티 또 다른 대선 전장.”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92054025(검색일 23/06/01).

미치는 기제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각 정당이 자신의 지지 후보층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가 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본 장에서는 정당별 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한 커뮤니티 내의 유권자 담론 분석을 통해 어떤 정치적 요인이 유권자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26]. 이후에는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커뮤니티 내의 유권자 반응이 실제 정당의 선거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의 변화추이와 대선패널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후보자 호감도와 성별이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가설을 검증해낼 것이다.

26)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으로 한정한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 당은 표본의 수가 적어 해당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제 1 절 정당의 동원과 유권자 반응

제20대 대선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27]. 진보당의 이재명 후보자는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당선되어 대통령 후보자가 된 이후 디시인사이드[28]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올리는 등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커뮤니티를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당에서 많은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준석 당대표 또한 펨코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29].

그중에서도 특히나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과 보수당 모두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전략이 상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초반에는 청년 남성 유권자가 주 사용층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이재명 갤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였으나, 정당의 선거 노선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변화한 뒤에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홍보,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보수당은 다수의 2030 청년 남성 유권자층들이 사용하는 에펨코리아[30]를 주 선거전략의 대상으로 삼으며 커뮤니티 내 담론을 만들어가면서 정책적 노선을 수정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정당별

---

27) 경향신문. 2021. “후보 검증부터 집단행동까지…커뮤니티 또 다른 대선 전장.”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92054025(검색일 23/06/01).

28) 디시인사이드(dcinside.com)는 남성 이용자수가 많은 3천여개의 갤러리와 3만여개의 서브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커뮤니티이다. 와플보드(Waffle Board)에 따르면 2023년 6월 커뮤니티 사이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https://waffleboard.io/ranking

29) 프레시안. 2022. “한때 '펨코 대통령' 이준석,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만든다… 공개 시점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109320990050(검색일 23/06/01).

30) 에펨코리아(fmkorea)는 남성 이용자수가 많은 커뮤니티이다. 와플보드(Waffle Board)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동시접속자수는 110,247명이다.

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커뮤니티를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할 커뮤니티는 여성시대[31], 에펨코리아이며, 이 외에도 후보자가 직접 글을 쓰거나 공유한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의 내용은 함께 인용하였다.

1. 이재명 후보와 청년 여성 유권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젠더갈등이 청년 유권자의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주요한 화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젠더이슈들을 토대로 유권자를 결집하고자 하는 정당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인해 청년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젠더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점은 20대 대선의 결과에서처럼 진보당이 처음부터 주 지지층으로 청년 여성 유권자들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후보자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 1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기의 페미니즘 멈춘다고 약속해달라”라는 디시인사이드의 게시글을 공유하여 여성 유권자들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33].

---

31) 여성시대(women’s generation)는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2023년 6월 1일 현재 회원 수 845,1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시대가 다른 커뮤니티와 다른 특징은 주민등록증상 여자인 것을 인증해야 회원가입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펨코리아와 디시인사이드보다 폐쇄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2) 전략적 모호성으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막판까지 초접전의 선거 구도가 계속되자 지지율 반등을 위해 여성 청년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한나 2022).

33)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SNS에 ‘홍카단(홍카콜라단·홍준표 지지자라는 의미)이 후보님께 드리는 글’을 공유했다. 앞서 8일에는 당 중앙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2030 남자들이 펨코(FM코리아)에 모여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라는 글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10일 글은 DC인사이드, 8일 글은 딴지일보에 각각 올라온 것이다.” 경향신문. 2021. “후보 검증부터 집단행동까지…커뮤니티 또 다른 대선 전장.”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92054025(검색일23/06/01).

<표4 :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연경언니미치 도록사랑해	이재명, 이번엔 '디시'글 공유했다.. "페미니즘을 멈춰주세요	2021.11. 12.	3307	52
눈을뗄수없는	심상정, "이재명 후보의 청년 속에 여성 자리는 없나?"	2021.11.11	3084	48

여성시대 사이트 내에서 디시인사이드의 글을 공유했다는 내용을 알린 게시글은 3308개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글에 댓글의 대다수는 "이재명을 절대 뽑지 않겠다." 라며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디시인사이드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글을 트위터에 개재하자, 해당 내용의 공유 게시글은 3084개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커뮤니티 내 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 말고 심상정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는 11월 20일 '갤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올려 많은 화제가 되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자가 쓴 글은 조회수 729208개, 추천수 8,682, 댓글수 1,595를 기록하며 디시인사이드 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재명의 게시글을 다시 재업로드하며 해당 사실을 전달한 게시글에는 조회수 309372개, 추천수 10,778개, 비추천수 10,017개, 댓글 9,695를 기록하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후보 지지와 반대의 쟁점의 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것은 후보자가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디시인사이드에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글과 반대글 모두 여론이 분분하였는데, 그중에서는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것은 청년들을 그만큼 생각한다는 뜻이라며 이재명을 응원하겠다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디시갤러리 보다 보수적인 청

년층이 다수 포진해있는 에펨코리아에는 이재명이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렸다는 글에 “그래도 이재명은 지지자랑 소통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우리는 가짜 당원 취급당하는데[34]”, “이재명은 쇼라도 한다. 지지자들 비하하는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래도 윤석열 본 투표날까지 지지율 유지할 것 같냐” 와 같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를 이루었다.

<표5 :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
에에에에레레	이재명 갤러리 근황.JPG	2021.11.20.	17408	43	188

[사과는 개나줘] 쟤는“진짜” 지지자랑 소통하네. 우리는 “가짜” 당원 취급당하는디 (124)

[김첨지표설렁탕] 쟤는 쇼라도 한다니까? 지지자들 비하하는 누구랑은 차원이 다른데 이래도 윤석열이 본 투표날까지 지지율 유지할거같나 (74)

[닉네임음] 쟤는 저런 쇼통이라고 하고 있지.....윤석열은 2030 상대로 진짜 암것도 안함 (40)[35]

선거운동 초반 이재명 후보자 측이 청년 여성 지지를 상징하는 페미니즘과 같은 단어를 멀리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떨어진 청년 남성들의 지지율을 함께 끌고 가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민감한 소재인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년 남성, 여성 유권자들 모두를 아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당의 반응에 여성 유권자는 다소 실망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여성 커뮤니티 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한 반발과

34) ‘우리는’은 국민의 힘 지지자를 의미한다.

35) 여성시대와는 달리, 에펨코리아는 댓글에 추천을 누를 수 있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베스트 댓글로 뽑힌다. 따라서, 에펨코리아의 글은 베스트 댓글을 함께 활용하여 표시하였다. 표6 게시글에 대한 베스트 댓글을 닉네임, 내용, 댓글 추천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의 수는 댓글을 추천한 개수를 의미한다.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은 순화하여 표현하였다.

함께 이재명을 뽑지 못하겠다며 심상정을 뽑자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후 트위터 및 여러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도 윤석열도 뽑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다”라는 성명문이 등장하였고, 해당 글은 조회수가 42,209개를 넘으며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500개 이상 달리기도 하였다.

<표6 :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메갈뒤진지가언제여	여자들이 모두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	2021.11.11.	27056	550
올랭프 드 구주	성명문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도 윤석열도 뽑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다.	2021.11.15.	15153	530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부터 이재명 후보자의 노선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당일 이재명 후보는 여성 등 소수자 의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에 출연하였고[36], 이후 2030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페미니즘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청년 유권자를 동원하고자 하는지 노선을 확실히 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37]. 이재명 후보의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경로 변화는 여성 커뮤니티 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도 급반전시켰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외쳤던 여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선택적 지

36)경향신문 (2022). “이재명, '젠더 평등'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 2022.01.07. (검색일23/06/01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071608001

37) “2022년 1월 9일 이재명 후보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30세대 청년들과 만나 '젠더 갈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다"며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22. “이재명 "페미니즘, 더 나은 세상 위한 것"... '여가부 폐지' 윤석열 비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51686(검색일23/05/26).

지의 의견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여성시대 커뮤니티 내에는 이재명 후보자의 여성 정책을 정리한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이재명이 페미니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이 331개가 달리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투명드래곤	이재명 “페미니즘, 더 나은 세상 위한 것”.. ‘여가부 폐지’ 윤석열 비판	2021.01.09.	17448	331
INTJ임	이재명이 공약한 여성 정책들 정리해봄	2022.01.08.	29809	497

이후 추적단불꽃 불로 활동하던 대학생 기자 박지현이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직을 맡기 시작하면서는 커뮤니티 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박지현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는 많은 여성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해석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20대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약 10% 정도 차이로 이기기 시작한 것을 20대 여성 지지율의 결집 현상으로 보며 여성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내용이 조회수 30,105개가 넘기고 댓글은 818개가 달리는 등 큰 공감을 받기도 하였다.

<표8 :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duri	이재명으로 결집 중인 걸로 보이는 20대 여성 표심	2022.02.22.	30104	818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주를 이루자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청년 여성들을 향한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선거일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는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직접 쓴 글과 영상 인사를 남기며 청년 여성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38]. 결국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청년 여성 유권자를 향한 전략적 동원은 더 노골적으로 행해졌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시대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러한 글의 조회수는 이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던 게시글의 몇 배를 뛰어넘기도 하였다.

<표9 : 여성시대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행복의 영원함	여성시대를 언급한 이상 이재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2022.03.04.	56406	1298
JM엔터테인먼트	초졸 이재명의 어린시절	2022.03.05.	109934	613

쟁점별 여성시대 커뮤니티의 유권자의 반응을 통해 이재명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여성 유권자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원해내며, 유권자들은 이에 반응하는, 정당 동원-유권자의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한겨레. 2022. “여성 커뮤니티에 글 올린 이재명 “여시님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604.html(검색일 23/06/01). (검색일23/06/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604.html
머니투데이. 2022. “이재명, 82만 여초 카페 찾아 "여시님들 도와달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420123640902(검색일 23/06/01).

2. 윤석열 후보와 청년 남성 유권자

젠더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선거 초반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동원전략을 보여주었다. 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준석을 당내로 영입하며, 처음부터 청년 남성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보수당은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청년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한 지지율을 흡수하여 당내로 가져오는 것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 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준석을 일찍부터 영입하여 이준석을 선두로 선거를 진행하면서 많은 청년 남성들의 표를 가져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힘은 청년 남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 또한 펨코대통령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커뮤니티를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청년 남성층에서 많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의 힘 홍준표 의원도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39] 홍준표 의원이 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이길 경우 이후 대선에서도 커뮤니티를 활용한 20·30대 청년 남성 유권자 동원전략이 계속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자 당선 결과, 청년 지지기반이 전무한 윤석열 후보가 내부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청년 남성 유권자를 중점으로 청년표를 흡수하겠다는 국민의 힘의 선거 방향은 다르게 흘러갔다. 이재명 후보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글을 공유한 이후 윤석열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의 반페미니즘 sns글을 부적합하다며, 20·30대 남성 여성 차별 없이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에펨코리아,

39) “2030 남성 회원이 많은 에펨코리아는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바람의 진원지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의 지지 바람을 타고 상승세를 만든 뒤 경선 막판 추격전을 벌였다.” 경향신문. 2021. “후보 검증부터 집단행동까지… 커뮤니티 또 다른 대선 전장.”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92054025(검색일 23/06/01).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 불만을 일으켰다.

<표10 :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
윤석열은 끝났다	윤캠패널 "2030 남성 여성 차별없이 민심 잡아야, 이재명의 반페미니즘 SNS글 부적합"	2021.11.09	10430	58	216

[구태구태] ㅊㅋ 끝났네 이놈들은 실망을 안시키노 (93)
[동동마리아] 캬 여지없죠? (69)
[핀토] 여성시대 : 윤석열 캠프가 미래다 (43)[40]

해당 내용을 알리는 에펨코리아 게시글에는 베스트 댓글이 “(윤석열)끝났다”, “여지가없다”, “여성시대: 윤석열 캠프가 미래다” 와 같은 댓글이 달리며, 해당 게시글은 추천 200개가 넘는 글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계속되는 갈등은 청년 남성들의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를 흔들었다. 그중에서도 많은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일으킨 요인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속, 페미니즘을 내걸고 활동했던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를 영입하였던 사건이었다. 신지예를 영입한 이후 남초 커뮤니티의 여론은 국민의 힘을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신지예 영입은 선을 넘었다는 글에는 조회수가 18289개, 추천수가 175개가 달리기도 하였고, 이후 신지예 관련된 글은 계속 인기글 상위에 랭킹 되는 등 신지예 영입은 청년 남성층의 반발을 사는 듯했다.

40) 표10 게시글에 대한 베스트 댓글을 닉네임, 내용, 댓글 추천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의 수는 댓글을 추천한 개수를 의미한다.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은 순화하여 표현하였고, 욕설은 본 내용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순화 혹은 삭제하였다.

<표11 :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
고윤하의 터진벨트	국힘 대학생위원회 신지예 입당 규탄 집회중	2021.12.23.	11630	29	169
신흥강호 라젠발	이수정영입은 화나도 이대남들이 한번 양보하는 분위기였는데	2021.12.24.	18289	19	175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커뮤니티 상의 여론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그래도 민주당에게 표를 줄 수 없기에 지지한다'는 선택적 지지 상황으로 분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남성 유권자들이 보수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준 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 이후 발표한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쓴 7글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였다[41]. 이때부터 국민의 힘을 향한 남성 커뮤니티의 반응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 초기 이미 언급한 바 있었고, 당시 청년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치 의제였다.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한 뒤, 바로 다음 날 여성가족부 폐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청년 남성층을 포섭하겠다는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 이후,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번 청년 남성층의 지지를 얻어내었고, 이후에도 병사봉급 200만원 보장과 같은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을 내세우며, 청년 남성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듯 에펨코리아에서 여가부 폐지, 병사봉급 200만원 지급과 같은 게시글에는 대부분 추천수가 300개 이상을 기록하고, 조회수가 30000개 가까이, 혹은 이상 되는 등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41) 연합뉴스. 2022. "이준석 손잡은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일곱글자 페북(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143951001(검색일 23/06/01).

<표12 : 에펨코리아 이슈별 키워드 조회 글>

닉네임	제목	작성날짜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
청화대	<세계일보> “이러시면 표 줄 수밖에”... 윤석열 ‘여가부 폐지’ 폭발적 호응	2022.01.08.	36083	38	304
클라우드22	윤석열 “병사봉급 200만원 보장. 청년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	2022.01.10.	27645	140	381

[Bosu] 무조건 윤이 되야함 이번 기회 아니면 여가부 폐지 절대 못함 이번에 꼭 여가부 폐지할려면 무조건 윤이 되야함 ㄹㅇ (66)
[lillili1] 아무리 트롤하던 말파이트라도 5인궁 썼으면 야스오로 호응해주는게 인지상정이다 (63)
[선전선동분탕] 이게 진짜 보수후보의 모습아니냐? ㅋㅋ 포퓰따지는 애들은 머리에 든게 없나(122) 올리면 되지. 끽해봐야 예산 10조인데. 대한민국 정제규모를 뭐로 아나 (40)[42]

보수당의 청년 유권자의 동원은 선거 과정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동원보다는 그 과정이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젊은 남성층을 적극적으로 동원해내어 보수당 지지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20대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며 기존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성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남성 청년층의 보수당 지지의 새로운 갈등의 형태를 등장시켰다. 결국, 보수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젠더갈등의 이슈를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년 남성 유권자의 반응을 이끌어냄을 확인할 수 있다.

42) 표12 게시글에 대한 베스트 댓글을 닉네임, 내용, 댓글 추천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의 수는 댓글을 추천한 개수를 의미한다.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은 순화하여 표현하였고, 욕설은 본 내용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순화 혹은 삭제하였다.

제 2 절 정당의 유권자 동원 결과

앞 절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유권자 동원을 목적으로 행했던 여러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정당 및 정당의 후보자가 젊은 층을 자신의 정당의 유권자로 불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 사이의 정당의 동원에 대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하였다는 전제만으로는 정치적 요인을 통한 정당의 성공적인 동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동원은 후보자, 정당, 운동원, 단체 등이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동원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Rosenston and Hansen 1993).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선거 과정에서 행해진 여론조사와 대선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설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호감도의 변화가 정당이 목적하고자 한 바대로 이루어졌다면*[43] *이는 정당의 유권자 동원의 성공을 의미한다.*

가설 검증에 활용한 데이터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리서치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1·2차 대선패널조사 결과이다.

43) 가설에서 정당이 목적한 바가 의미하는 것은 민주당은 청년 여성 유권자의 동원, 보수당은 청년 남성 유권자의 동원이다.

1. 여론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

여론조사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선거 과정에서 커뮤니티 내 반응이 뜨거웠던 시기별 후보자 지지율의 변화가 정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국지표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매주 유권자의 후보 지지 및 정치적 의제에 대한 유권자의 다양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국지표조사의 기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날짜를 포함하는 2021년 10월 1주의 여론조사부터 2022년 3월 1주 제20대 대선 이전까지이다[44]. 2021년 각 정당 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022년 대선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녀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여 후보자별 지지율을 확인하였다[45]. 정당별로 동원의 결과가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만약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정당이 목적하고자 한 바대로 이루어졌다면[46] 유권자와 정당의 동원이 긍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20·30대 청년 여성들의 지지율은 2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1월 10일 디시인사이드 글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추셔야 한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후, 11월 3주(여론조사 기간 11월 15일부터 17일) 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8.62%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론조사 결과 12월 1주차(여론조사 기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26.5%로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그 이전 29.7%, 30.9%를 웃돌던 높은 지지율로 회귀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왔다.

---

44) 2월 2주의 값은 전국지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릿수는 버림하여 나타내었다.

45)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 포함하지 않았다.

46)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짐의 의미는 앞선 가설에서 각주로 설명하였다.

<표13 : 20·30대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날짜 / 지지율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여성	22%	25.7%	30.9%	26.1%	29.7%	18.6%	23.4%	26.5%
남성	22.7%	27.9%	30.9%	23.1%	32.2%	28.3%	25.7%	22.9%

이와는 반대로, 20·30대 청년 남성 유권자의 경우, 11월 1주 23%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11월 2주차(여론조사 기간 11월 8일부터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갑자기 32%까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을 공유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남성 청년의 지지율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정당, 혹은 후보자의 정치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지현의 선거대책위원회의 합류가 지지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전국지표조사 2월 1주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여성 유권자 동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존재한다. 1월 1주 지지율 30.9%을 찍은 이후 20%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이재명 후보자는 2월 4주가 되면서 31.6%의 지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당시 커뮤니티 내에는 이재명의 지지를 독려하는 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표의 힘을 보여주자는 글이 많아지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4 : 20·30대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날짜 / 지지율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여성	30.9%	26.9%	25.1%	27.4%	21.4%	24.1%	31.6%	32.9%
남성	35.1%	30.9%	15.3%	28.6%	31.5%	20.6%	24.6%	28.1%

여론조사 지지율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자가 처음 청년 유권자 모두를 포섭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이후 청년 여성 유권자층으로 선거전략을 바꾼 시점까지 지지율의 흐름을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유권자 동원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청년 여성의 진보당 지지는 후보자 혹은 정당이 제시했던 정책, 발언, 선거 유세 전략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닿았고, 유권자들이 이에 반응하며 지지율로 드러나는 동원의 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부터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 변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초기 이준석의 등장으로 인해 당의 지지율을 확보했던 국민의 힘은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청년 남성 지지의 부침을 겪었다. 기존의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던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고, 당 밖에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서 청년 지지율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할 당시 청년 남성의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는 36.2%의 지지를 얻은 반면에, 윤석열은 4.91% 밖에 얻지 못했다[47]. 윤석열 후보는 당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 지지율이 줄곧 20% 후반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청년 세대의 희망으로 불리던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명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때의 남성지지율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는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읽지 못한 채 12월 20일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를 선거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펼쳤다. 이를 계기로 당내에 잔류하던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대거 이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12월 4주(여론조사 기간 12월 20일부터 22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18.5%로 급락하게 되었다. 이는 12월 2주(여론조사 기간 12월 6일부터 8

47) 해당 결과 역시 전국지표조사를 활용하였으나, 기존의 자료에 홍준표 후보자를 추가하여 지지율을 분석하였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낮은 지지율을 받은 것은 국민의 힘의 경우 당내 경선이 한 달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윤석열 후보자가 당내에 있던 정치인이 아니였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5.2%인 것과 비교하면 약 17%가 떨어진 수치이다. 이러한 급락의 지지율은 1월 1주(여론조사 기간 1월 3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었다.

<표15 : 20·30대 윤석열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날짜 / 지지율	10월 2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12월 1주	12월 2주	12월 4주	1월 1주
남성	4.9%	30.6%	27.1%	27.6%	31.0%	35.2%	18.5%	18.6%
여성	5.3%	20.2%	22%	18.7%	21%	15%	20%	17%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 이후,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전략은 많은 부분 변화하였다. 1월 3일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성시대의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주었다며” 청년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유권자층의 지지율을 수습하고자 했고, 1월 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리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의 청년 남성 유권자 지지는 급증할 수 있었다.

<표16 : 20·30대 윤석열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날짜 / 지지율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남성	28.9%	39.1%	36.3%	36.2%	45.5%	37%	43%
여성	15.6%	19.2%	13.7%	22.9%	22.5%	24.6%	22.1%

1월 1주까지 18.6%에 그치던 지지율은 신지예 영입 철회, 이준석 당대표와의 화해, 여가부 폐지 정책 제시와 같은 여러 정치적 요소를 바탕으로 1월 2주(여론조사 기간 1월 10일부터 12일)에는 28.9%, 1월 3주(여론조사 기간 1월 17일부터 19일)에는 39.1%까지 치솟는 등 청년 남성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결국, 윤석열 후보와 당내의 선거

분위기의 변화를 기반으로, 청년 남성 유권자의 윤석열 후보자를 향한 지지는 지속될 수 있었으며, 초기 4.9%에 불과한 지지율을 보냈던 청년 남성 유권자들이 적극 지지로 돌아서는 성과를 보였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윤석열 후보자의 청년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43%를 넘으며 정당의 동원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분석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정당 혹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동원한 유권자 이외의 다른 유권자 층위에서는 이러한 동원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지예 전 녹색당 대표의 영입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 남성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며 지지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지만, 청년 여성 유권자는 커뮤니티 내의 담론뿐만 아니라 지지율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과정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공유 이외에 이재명 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던졌던 메시지에 청년 남성 유권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을 통해 정당과 유권자는 후보자의 동원전략 속에서만 반응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론조사를 활용한 성별 후보자 지지율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정당의 유권자 동원 결과가 앞서 커뮤니티 분석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후보자 모두 자신의 동원 대상을 확실히 정한 이후부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유권자들은 이를 커뮤니티를 속에서 공유하고 그들만의 담론을 만들며 해당 후보자를 향한 지지율로 화답하였다. 즉, 청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윤석열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청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재명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냄을 통해 정당의 동원전략에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선패널조사를 통한 가설 검증

대선패널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유권자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후보자의 호감도를 확인하고 조사 시기에 따라 호감도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리서치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함께 진행한 1차·2차 대선패널조사이다. 1차 대선패널조사 시기는 2022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2022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국의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주민등록현황에 맞게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30대의 성별에 따른 후보자별 호감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20세부터 39세 이외의 연령대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통계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에 사용할 핵심 설명변수는 성별에 따른 후보별 호감도 지지 변화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불러드리는 정치인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시는지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는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성별과 호감도의 p값을 확인한 결과 1차·2차 결과값이 다르고, 그 값이 정당의 동원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가설이 증명 가능하다고 보았다.

<표17 : 1차 조사/성별이 후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계수	표준오차	t값
성별(ref=남성)	.151	.335	0.45	-1.305**	.311	-4.18
상수	3.712042	.2301219	16.13	4.84	0.21	22.63
R2	0.000			0.047		
Adj. R2	-0.002			0.044		
F(sig.)	0.651			17.500		
N	360			360		

먼저 1차 대선패널조사 결과를 통해 성별이 후보자별 호감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회귀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성별이 후보자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과 다르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p값이 0.000이 나옴으로써 성별이 후보자 호감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48]. 다시 말해, 1차 대선패널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자의 호감도에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윤석열 후보자의 호감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후보자에 대해 더 낮은 호감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와도 함께 설명될 수 있다. 전국지표조사의 지지율 변화추이에서 1월 2주에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여성의 지지율은 26.9%였고, 남성의 지지율이 30.9%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반해, 같은 시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여성의 경우 15.6%, 남성 28.9%를 나타내며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정당 동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차 대선패널조사가 이루어진 1월 12일부터 15일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이미 내건 이후였고, 이에 많은 청년 남성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태였다.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자의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폐지가 나오기 전까지 성별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책 이후 조금씩 여성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상황이었다. 즉, 1차 대선패널조사가 이루어진 당시까지는 이재명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알맞는 20·30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을 내지 못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남성 유권자를 확실히 겨냥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표17>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48) p-value 값이 0.05를 넘지 않을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표18 : 2차 조사/성별이 후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구분	계수	표준오차	t값	계수	표준오차	t값
성별(ref=남성)	.983*	.398	2.47	-1.716**	.379	-4.52
상수	3.614	.277	13.03	5.118	.264	19.37
R2	0.022			0.073		
Adj. R2	0.019			0.069		
F(sig.)	6.090			20.470		
N	262			262		

성별이 이재명 후보자 호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왔던 1차 대선패널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2차 대선패널조사 결과에서는 성별이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자의 호감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9]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재명에 대해 더 높은 호감도를 보이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낮은 호감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역시 정당의 동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차 대선패널조사는 3월 10일부터 15일까지로 선거 직전에 실시되었고, 당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모두 각각 청년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1차, 2차 시기에 따라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상관관계가 변화한 것은 정당이 유권자 동원을 성공한 결과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값이 <표18>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와 대선패널조사 결과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호감도의 변화가 정당이 목적하고자 한 바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당의 유권자 동원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가설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청년 여성은 민주당 지지, 남성은 보수당 지지라는 새로운 유권자의 모습이 정당 동원의 결과로 등장했다는 설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49)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p값은 0.014,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p값은 0.000이 나왔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제20대 대선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젠더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 정당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2022년 대선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정치적 기제로 활용하여 청년 유권자를 투표의 장으로 불러내었고, 성공적인 동원을 이뤄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젠더갈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균열로 작동했던 지역·이념·세대의 요소들의 영향이 조금씩 감소하고,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의 관심이 커져가는 균열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논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당일체감을 갖지 않는 무당파층인 청년이 선거에서의 주목받는 행위자로 작용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20대 대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젠더갈등과 20·30이라는 새로운 유권자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당의 동원이라는 정치적 기제들이 모두 함께 맞물려 발생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제20대 대선에서 등장한 젠더갈등은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균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본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치균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E. E.1960)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오직 몇몇 갈등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이처럼 중요한 갈등만이 사회에서 균열로서 자리 잡는다. 특히, 새로운 갈등의 구조 즉 균열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갈등 구조가 약화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갈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촉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당체제가 젠더갈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당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젠더갈등은 기존의 견고한 지역, 이념, 세대의 균열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생

성되었다기보다는 현존하는 균열과 함께 작용하며 균열의 하위단계에서 등장한 갈등이므로 갈등의 층위 단계에서 볼 때에도 기존의 균열들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정치균열에 대한 논의이다. 립셋과 로칸은 정치균열이 정치체계로 작용하기 위해 네 가지 관문, 정당화의 관문·통합의 관문·대표성의 관문·다수결의 관문을 제시하고 있다. 립셋과 로칸의 명제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정치균열이 정치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젠더갈등이 균열로 등장하는데 있어서 소수 정당으로서 의회의 진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대표성의 관문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젠더이슈를 정당의 주요한 의제로 삼고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 나머지의 관문이 모두 완성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표성의 관문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갈등이 우리사회의 정치 정향의 지속적인 간극을 만들어내는 견고한 균열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갈등이 정치균열로 등장하는 데에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의 본질적인 속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젠더갈등이 어떤 세대를 중심으로 이슈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이 새로운 유권자를 이끌기 위한 동원 기제로서 젠더갈등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0·30대 유권자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었다. 젊은 세대 특히 20대 유권자층은 다른 연령층의 유권자에 비해 확고히 자리 잡은 정치적 일체감이나 정파적 충성심이 약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선호하는 속성을 지닌다(강원택 2003). 또한 민주화 이후의 세대 중에서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이념적인 틀에 덜 얽매이기 때문에 지역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타산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정진민 2012). 결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갈

등의 물결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규정되는 균열은 특정 정치적 사건 등으로 촉발된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정향의 지속적인 간극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의 선거에서 꾸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제20대 대선에서 등장한 젠더갈등은 이번 선거에서의 일시적인 갈등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견고한 균열로서 작동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갈등을 정치적 요소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파악하고, 정당의 동원과 유권자의 관계를 커뮤니티 담론 분석을 통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여론조사와 대선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당의 유권자 동원을 검증해내었다는 점은 해당 연구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언급된 몇몇 사건을 중심으로 정당과 유권자의 동원-반응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과, 커뮤니티 담론이 갖는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시기별 쟁점별 올라온 글 전체를 세세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번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연구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원택. 2003.「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강원택. 2010.「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이슈,캠페인과 투표참여」. 나남.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7-3, 99-129.

강원택. 2017.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보」16-2, 5-33.

강원택. 2020.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2012년 대통령 선거." 「한국정당학회보」12-3, 5-28.

강원택. 2020.「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푸른길.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27-1, 205-240.

곽진영·김은경. 2018. 한국정당체계의 사회적 이익 반영 패턴의 변화." 「사회과학연구」44-3, 161-184.

김가영.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젠더균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기동·이재묵·정다빈. 2020.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감정적 효과: 한국 유권자들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사회학」54-4, 41-82.

김기동·이재묵. 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55-2, 57-87.

김기동·이재묵·정다빈. 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한국정치학회보」55-4, 5-42.

김만흠.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한국정치학회보」28-2.215-237.

김민정·김원홍·이현출·김혜영. 2003.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7-3, 89-112.

김한나. 2022. "2022 대선과 20대 유권자의 젠더 균열."「한국사회과학연구회」0-115, 296-338.

길정아·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의정연구」25-1, 45-78.

구본상・최준영. 2019.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하에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자부심, 통일효용인식."「오토피아」 34-1, 43-75.

구본상. 2021. "성차별 인식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19대통령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2, 39-71.

김욱. 2009. "정치문화의 변동과 가치 갈등: 탈물질주의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19-3, 97-119.

문우진. 2016.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한국정당학회보」15-3, 37-60.

박가현. 2022. "담론의 정치와 성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2018년 한국의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경미·손병권·임성학. 2010.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정의와 민주주의 심화의 문제." 「분쟁해결연구」8-1, 111-145.

박선경. 2020. "대한민국 성차별 민주주의의 연혁." 「성별・문화」 12-1, 119-162.

배진석. 2022. "86세대와 세대 효과의 종언: 1992-2022 대선 분석."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1-22.

오현주·길정아. 2013. "유권자의 이념과 투표선택: 보수의 결집과 진보의 분열." 박찬욱·강원택 편,「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나남.

윤광일. 2019.「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나남.

윤왕희·윤영관·정지혜. 2021. "한국의 스윙보터는 누구인가? : 2017년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본 무당파 유권자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16-2, 55-77.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1-1, 137-166.
이내영. 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2, 42-72.
이동윤. 2009.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47-5, 255-276.
이남영. 1995. "성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14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1-1, 33-52.
이한수.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분열쟁점과 쟁점투표." 「의정연구」 28-2, 5-41.
이용마. 2014.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지호. 2009. "정당위치와 유권자 정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 111-136.
장승진. 2013.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47-4, 51-70.
장승진·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보」 54-5, 153-175.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전용주 외. 2009.「투표행태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 21-2, 1-22.
정진민·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원을 중심으로"「국가전략」20-3, 135-162.
조기숙. 2000. "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와 기제: 세대교체, 전환, 혹은 동원?."「한국정치학회보」 19-2, 63-100.
조기숙. 2002. "한국 여성의 투표행태와 여성정책." 「의정연구」 8-1,

198-242.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한국정치학회보」 30-4, 491-496.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한정훈. 2019. "한국 청년층의 보수화." 「사회과학논총」58-1, 89-114.

Abramowitz, Alan. 1995. “It's Abortion, Stupid: Policy Vot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s, 57-1, 176-186.
Bafumi, J. and Shapiro, R. Y. 2009. “A New Partisan Voter.” The Journal of Politics, 71-1, 1-24.
Barolini, S. and Mair, P. 1990.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z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lsen, T., Druckman, J. N., and Cook, F. L. 2014. “The Influence of Partisan Motivated Reasoning on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36-2, 235-262.
Box-Steffensmeier, J. M., De Boef, S., and Lin, T. M. 2004. “The dynamics of the partisan gender ga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3, 515-528.
Brooks, C., and Manza, J. 1997. “Social cleavages and political alignments: US presidential elections, 1960 to 199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37-946.
Butler, D., and Stokes, D. 1974. Political Change in Britain: The Evolution of Electoral Choice (2nd ed.). London: Macmillan.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Campbell, J.E. 1991. “The presidential surge and its midterm decline in congressional elections, 1868-1988.” The Journal of Politics, 53-2, 477-487.

Charles S. Taber and Milton Lodge.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Dalton, Russel.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1, 264-284.

Dalton, Russel J., Beck, P. A. and Flanagan, S. C.. 1984.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Russe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11.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3rd ed. New York: Pearson-Longman.

Groenendyk, E. and Krupnikov, Y. 2021. “What Motivates Reasoning? A Theory of Goal-Dependent Political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5-1, 180-196.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 and Norris, P.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Iyengar, S., Sood, G., and Lelkes, Y.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Janowitz, M. and Segal, D. R. 1967. "Social Cleavage and Party Affiliation: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6, 601-618.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ane, Jan-Erik, and Svante O. E. 1994.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Lipset, S. M. and Rokkan, S..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Lipset, S. M. and Manza, J., and Brooks, C. 1998. "The gender gap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When? Why?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5, 1235-1266.

Miler, William L., Harold D. Clarke, Martin Harrop, Lawrence LeDuc, and Paul F. Whiteley. 1990. "How Voters Change; The 1987 British Election Campaign in Perspective. Oxford: Clarendon Press.

Miller and Wattenberg, M. P. 1983. “Throwing the Rascals Out: Policy and Performance Evaluations of Presidential Candidates, 1952 - 198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2, 359 - 372.

Norris, P. 1999. “A gender-generation gap?” Evans, G., and Norris, P. 1999. “A gender-generation gap?.” In Evans, G., and Norris, P. (Eds.), “Critical Elections: British Parties and Voters in Long-Term Perspective.” Sage, 743-758.

Rosenstone, S. J. and Hansen, J.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Sartori, Giovanni. 1990. “The Sociology of Parties: A Critical Review.”

Schattschneider, E. E. 197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국역: 현재호・박수형 옮김. 2008. 『절반의인민주권』. 서울: 후마니타스).

Shamir, Michal. 1984. “Ar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Frozen'?: A Comparative Dynamic Stud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7-1, 35-79.

Stokes, Donald.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368-377.

Taber, C. S. and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Taylor, M. and Douglas W. R. 1969. “An Analysis of Crosscutting between Political Cleavages.” Comparative Politics 1-4.

한겨레. 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 ’지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검색일23/05/29).

중앙일보. 2021. 서지현 검사 “미투 3년 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84100(검색일 23/04/04).

시사인. 2018. “문재인 정부를 흔든 공정의 역습.”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검색일 23/05/30).

한겨레. 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 ’지지 .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1440003688)(검색일 23/05/29).

한겨레. 2021. “엇갈린 20대 표심…‘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박영선 ’지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0085.html(검색일23/05/29).

시사인. 2022. “20대 남녀 투표, 이 지점에서 극명히 갈렸다 [대선 표심 분 석] .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84(검색일23/05/27).

서울경제. 2021. “[송종호의 여쏙야쏙]'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 '젠더 백래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RH9SJ9(검색일 23/05/28).

경향신문. 2021. “후보 검증부터 집단행동까지…커뮤니티 또 다른 대선 전 장 .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1192054025(검색일23/06/01).

프레시안. 2022. “한때 '펨코 대통령' 이준석,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만

든다…공개 시점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109320990050 (검색일 23/06/01).

경향신문. 2022. “이재명, '젠더 평등'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1071608001(검색일 23/06/01).

한국일보. 2022. “이재명 "페미니즘, 더 나은 세상 위한 것"... '여가부 폐지' 윤석열 비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51686(검색일23/05/26).

한겨레. 2022. “여성 커뮤니티에 글 올린 이재명 “여시님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604.html (검색일 23/06/01).

머니투데이. 2022. “이재명, 82만 여초 카페 찾아 "여시님들 도와달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420123640902(검색일 23/06/01).

연합뉴스. 2022. “이준석 손잡은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딱 일곱글자 페북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143951001(검색일 23/06/01).

세계일보. 2019. “"여성우대 정책 오히려 역차별"…정부에 등 돌린 '20대 男'.”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113001857(검색일 23.04.04).

중앙일보. 2021. 서지현 검사 “미투 3년 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84100(검색일 23/04/04).

프레시안. 2022. “한때 '펨코 대통령' 이준석,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만든다…공개 시점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109320990050 (검색일 23/04/04).

한겨레. 2022.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이재명 선대위 합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129.html (검색일 : 23.04.05).

한국일보. 2022. “여혐 범죄 경보 울렸지만… '혐오 범죄' 실태 파악할 길 없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1440003688(검색일23/08/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2016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 전국지표조사 21년 10월1주~2022년 3월1주.

한국리서치 동아시아연구원. 2022. 2022년 대선패널 1차 조사.

한국리서치 동아시아연구원. 2022. 2022년 대선패널 2차 조사.

Abstract

Gender Conflict and Party Politics in the 2030 Youth Voter

: Focusing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KIM DALE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Can the gender divide among voters, such as the emergence of young women's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young men's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emerge as a political fissure in future elections in South Korea?" While seeking an answer to this question, we realized that most of the discussions on gender conflict as a political fissure in Korea have focused on socio-structural approaches, which have the limitation of not fully explaining this recently emerged phenomenon.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blem of gender conflict as a political fissure as a political factor rather than a

socio-structural problem and to answer whether gender conflict can be established as a political fissure in Korea.

The chosen theoretical approach to analyze gender conflict as a political factor is 'party mobilization theory.' In this approach, political parties are viewed as active actors that mobilize voters, rather than passive entities that are simply affected by political fissures. In other words, political parties actively use political conflict to win elections, and voters react to it and form a mutual relationship.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munity discourse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mong various analytical frameworks to examine voter responses, we chose community discourse analysis because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actively used community as a way to mobiliz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community discourse analysis focused on several issues that we belie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in support among young voters in the election. We found that both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were making great efforts to mobilize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at voters' responses varied by gender and generation depending on the political factor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as the election approached, the Democratic Party tried to mobilize young female voters, and the Conservative Party tried to mobilize young male voters more actively. We found that voters' responses varied as the parties' mobilization policies changed.

After analyzing the discourse, we examined the changes in approval ratings over time and the impact of gender on candidate preferences using data from opinion polls and presidential panel

surveys to determine whether young people's responses led to their choice of candidates. In particular,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panel survey confirmed similar results to those seen in the opinion polls, suggesting that the gender conflict among the 2030s emerge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s a result of political factors aimed at mobilizing voters. These results have research implications as they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social conflicts and voters mobilized by political parties in future elections may change in various ways.

keywords :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2030 youth voter, party politics, gender conflict, political mobilization, community discourse analysis
Student Number **: 2020-20825**